

# 현대 중국어 목적/결과 관계 복문에 사용되는 '好'의 통사·의미적 특징

임 소 정\*

## <목 차>

1. 서론
2. 연결부사 '好'의 통사적 특징
  - 2.1 주어의 제약
  - 2.2 서술어의 결합 유형
3. 연결부사 '好'의 의미적 특징
  - 3.1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
  - 3.2 화자 지향적 양태 vs 행위자 지향적 양태
4. 결론

## 1. 서론

현대중국어 '好'에는 형용사, 동사, 정도부사, 조동사 등 다양한 용법이 존재한다. '好'는 주로 형용사로서 관형어(예: 好方法)나 술어(예: 天气很好)로 사용되고, 동사 뒤에서 보어(예: 做好)로 사용되거나 형용사 앞에서 정도부사(예: 好香)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밖에도 '好'는 동사성 성분 앞에 출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예문과 같이 단문과 복문에 사용되는 용법으로 구분된다.

www.kci.go.kr

\* 국립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 (1) a. 我們食堂的泡菜很好吃。  
 (우리 식당의 김치는 아주 맛있다.)  
 b. 我買了一些吃的, 餓了好吃。<sup>1)</sup>  
 (배고플 때 먹으려고 내가 먹을 것을 좀 사왔어.)

(1a)와 (1b)의 ‘好’는 모두 ‘好+동사V’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好’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은 다르다. (1a)의 ‘好+V’ 구조는 단문에 출현하여 명사 논항의 상태를 형용하고 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好吃’는 이미 어휘화되어 ‘맛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있다.<sup>2)</sup> 그에 비해 (1b)의 ‘好+V’는 복문에 출현하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어준다. ‘好’의 형용사 용법과 (1a)처럼 단문 속에서 어휘화된 ‘好+V’ 구조로 사용되는 용법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서부터 접하게 될 만큼 사용 빈도도 높고 학습자들에게는 친숙한 용법이다. 그런데 (1b)와 같이 동사 앞에 출현하며 복문에 사용되는 용법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용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본고는 복문에 사용되는 ‘好’의 통사와 의미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문에 출현하는 ‘好’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다룬 관련 연구로는 申惠仁(2009)과 신혜인(2013)이 대표적이다. 申惠仁(2009)은 형용사, 부사, 조동사 등 ‘好’의 여러 용법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사 앞에 사용되어 ‘便于, 宜于(~하기 좋다, 적합하다)’, ‘可以, 值得(~할 수 있다, ~할 만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好’를 조동사로 보았고, 복문에서 후행절에 사용되어 선행절과 연결해주는 ‘好’를 접속사로 보았다. 그런데 동사 앞에 사용되면서 동시에 ‘好+V’가 복문의 후행절에 출현하는 ‘好’의 경우에는 이를 조동사로

1) 본 논문의 예문은 北京大學 CCL말뭉치(<http://ccl.pku.edu.cn/corpus.asp>)와 北京語言大學 BCC말뭉치(<http://bcc.blcu.edu.cn/>)에서 추출하였다.

2) (1a)의 ‘好’는 단어가 아니라 형태소이다. (1a)와 같이 ‘好+V’ 형식이 어휘화된 사례로 ‘好看’, ‘好听’, ‘好玩’ 등이 있다. ‘這首歌很好唱.’에서 ‘好’는 ‘~하기 쉽다/~에 적합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1a)만큼 ‘好’와 동사 사이의 긴밀도가 높지 않아 대개 단어가 아닌 구로 보며, 이때는 ‘好’를 조동사로 보는 의견이 많다.

보아야 할지 접속사로 보아야 할지 상기 정의와 설명만으로는 용법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 조동사 용법으로 제시한 예문인 '你留个電話, 到時候我好通知你。(나중에 내가 너한테 연락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 놓아.)'는 접속사 기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논문은 복문에 사용된 '好'의 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어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혜인(2013)은 동사성 성분 앞에 출현하는 '好'를 의미와 통사적 양상에 근거하여 조동사(助動詞), 접속사(連詞), 연결부사(關聯副詞) 등 세 가지 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동사 '好'는 '能, 便于'를 뜻하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앞에 부정사, 의문사 등과 함께 출현한다.<sup>3)</sup> 접속사 '好'는 '수단S1-목적S2' 관계의 복문에 사용되며 S2의 문두에서 '以便, 爲了'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연결부사 '好'는 '전제조건S1-결과S2'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 사용되며 '這樣就可以'에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혜인(2013)은 조동사 '好'는 단독절로 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접속사와 연결부사 '好'는 선행절 S1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접속사와 연결부사의 차이에 대해서, 전자는 S2의 문두에 사용되며 앞에 기타 성분이 출현할 수 없지만, 후자는 앞에 주어나 수식 성분 등 기타 성분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논문은 접속사와 연결부사를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기반하여 구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접속사와 연결부사의 예문을 해석해보면 의미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 접속사 예문에 '전제조건-결과', 연결부사 예문에 '수단-목적'의 의미관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결국 접속사와 연결부사로 구분한 것은 사실상 '好' 앞에 기타 성분의 출현 여부에 따른 형식적 분류에 불과하며, 이러한 형식적 분류는 '전제조건-결과'와 '수단-목적'의 의미적 차이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신혜인(2013)이 접속사와 연결부사로 구분하여 다

3) 하지만 본고가 진행한 코퍼스 조사에서는 조동사 '好'가 기타 성분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용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我買了一些吃的, 餓了好吃。' 등의 예문에서 '好'는 부정사나 의문사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

루었던 복문에 출현하는 ‘好’를 품사의 구분 없이 모두 연결부사로 명명<sup>4)</sup>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고 의미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연결부사 ‘好’의 통사적 특징

### 2.1 주어의 제약

본 절에서는 연결부사 ‘好’가 출현하는 복문의 주어에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여부, 주어의 인칭, 주어의 출현 위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2) a. 希望大家帮我洗洗清爽, 我好重新做人.  
(내가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말끔하게 씻겨주면 좋겠다.)
- b. 你听報告時把筆記記詳細一点儿, 回來好給我們傳達傳達.  
(너 보고 내용 들을 때 필기를 꼼꼼히 해줘.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게.)
- c. 她幼小的心灵沒有一天忘記這件事, 用功念書, 把小學念好, 有機會好考上中學.  
(그녀의 어린 마음은 단 하루도 이 일을 잊지 않았다. 기회가 있으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초등학교를 잘 다녀두었다.)

www.kci.go.kr

4) 본고에서 복문에 출현하는 ‘好’의 품사를 ‘연결부사’로 명명한 이유는 ‘好’가 동사, 개사, 부사 앞에 출현하며 부사적 특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복문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사 기능도 지녔기 때문이다.

(2a-c)는 '好'가 차례로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를 취하고 있으며,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예시이다. (2a)에서 선행절의 '希望'과 후행절의 '做人'의 주어는 모두 1인칭 '我(나)'인데, 선행절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어가 후행절에 출현할 때 주어는 '好'의 앞에 위치한다.<sup>5)</sup> (2b)의 경우 '필기하다'의 행위자와 '돌아와서 전달하다'의 행위자가 모두 2인칭 '你(너)'이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你'인데,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2c)의 경우 선행절의 행위 사건인 '공부를 열심히 하다'와 후행절의 행위 사건인 '중학교에 입학하다'의 행위자가 모두 3인칭 '她(그녀)'이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모두 '她'인데, 다만 후행절의 주어가 표면적으로 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주어의 생략 문제와 관련해서, 韓明珠 (2013)는 선행하는 행위절과 후행하는 목적절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 주어는 목적절의 '好' 앞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b)와 (2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여 어느 한 쪽을 생략하는 상황에서 선행절의 주어를 남겨두는 경우도 많다. 이제 다음 예문을 한 번 보자.

- (3) a. 你把出發的日期說準確了, 我們好幫你準備。  
(출발일자를 정확하게 말해줘. 우리가 너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 b. 他們倆把房換到西城去了, 好離上班的地兒近点儿。<sup>6)</sup>  
(그 둘은 집을西城 쪽으로 옮겼다. 출근 장소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이다.)

(3)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예이다. (3a)의 선행절의 주어는 '你', 후행절의 주어는 '我們'이고, (3b)의 선행절의 주어는 '他們倆', 후행절의 주어는 생략되어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房'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5) 이는 '好'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以便'과 다른 점이다. '以便' 역시 후행절에 출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데, 후행절에 주어가 출현할 때 주어는 '以便'의 앞이 아닌 뒤에 위치한다.  
예: (2a')希望大家幫我洗洗清爽, 以便我重新做人.

6) 申惠仁(2009)에서 인용.

7) (3b)의 후행절은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절로서, 해당 절의 주어를 사람 명사

또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把手舉高点儿, 好讓老師看見.  
 (손을 높이 들어, 그래야 선생님께서 보시지.)  
 b. 他停下來, 好讓死者家屬多看一會.  
 (그는 멈추어 섰다. 유가족이 잠깐이라도 더 볼 수 있게.)

(4)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적 주어는 일치하지만 선행절인 행위절과 후행절인 목적절의 행동주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a)의 경우 '(你)把手舉高点儿, (你)好讓老師看見.' 과 같이 통사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 행위인 '看見(手)'의 실질적 주체는 '你'가 아닌 '老師'이다. 마찬가지로 (4b)의 경우 '他停下來, (他)好讓死者家屬多看一會.' 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적 주어는 '他'이지만, 목적 행위인 '多看一會'의 실질적 주체는 '他'가 아닌 '死者家屬'이다. 이처럼 후행절의 통사적 주어와 의미상의 행동주가 다른 이유는 문장에 사역동사 '讓'을 사용함으로써 '讓'의 주어인 통사적 주어와 '讓'의 빈어인 의미적 행위자에게 목적 행위를 하게끔 하여 행위자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결부사 '好'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에 대한 제약과 주어의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행절에 주어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주어가 '好'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위치적 제약 조건은 존재하였다.

## 2.2 서술어의 결합 유형

이 절에서는 연결부사 '好'와 결합하는 서술어인 동사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연결부사 '好'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를 고찰해본 결과, 아래의

인 '他們倆'로 보는 것보다 장소 명사인 '房'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표와 같이 '好'와 사역동사 '讓'이 압도적으로 많이 결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去', '有', '叫', '能' 순으로 결합 빈도가 높았다.

<표1> '好'와 결합하는 동사의 빈도별 순위<sup>8)</sup>

순위	후행절 동사	용례 수
1	讓	1627
2	去	219
3	有	157
4	叫	135
5	能	113

이처럼 '好'가 '讓'과 결합을 가장 많이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동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행절의 행동주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문장에 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래 (5-6)처럼 '讓', '叫' 등과 같은 사역동사를 통해 사역동사의 빈어로 출현하는 것이고<sup>9)</sup>, 다른 하나는 (7)과 같이 '好' 앞에 주어로 출현하는 것이다.

- (5) a. 1981年3月司机將出租車停在路邊，好讓一大隊蘇聯吉普和裝甲車通過。  
 (1981년3월 기사는 택시를 도로가에 세워, 소련 지프차와 장갑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b. 他跟丁約翰絮叨他的買賣、他的難處，還有別的雞毛蒜皮的事兒，好讓丁約翰不懷疑他。  
 (그는 요한에게 그의 매매, 고충, 그리고 다른 자잘한 일들을 주절주절 말하여 요한이 그를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 c. 帶个響鈴，好讓人家听了避開我。  
 (사람들이 듣고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벨을 하나 달고 왔다.)

8) 북경어언대학교 말뭉치(<http://bcc.blcu.edu.cn/>)에 근거하여 통계를 낸 수치임.  
 9)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讓'과 '叫' 모두 사역동사인데 연결부사 '好'와의 결합 빈도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본고는 '好'가 선행행절의 주어 불일치 상황에서 사역동사와 빈번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이며, 사역동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용 경향이나 빈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 (6) a. 臉上的笑都是用來逢迎的, 好叫人收留他。  
 (얼굴에 띠고 있는 미소는 남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첨을 하기 위한 것이다.)
- b. 師爺赶忙出來給縣太爺搭梯子, 好叫他下台。  
 (비장은 현령이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열린 사다리를 가져다주었다.)
- c. 明天我得去申訴, 好叫他們不敢再干這種事。  
 (내일 나는 컴플레인을 하러 가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 (7) a. 她的烹調很拿手, 杰民, 你可以叫她請你吃一次啦, 我們好來做陪客。  
 (그녀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니 그녀에게 너를 한 번 초대해달라고 해봐. 우리도 곁다리로 따라가게.)
- b. 你留个電話, 到時候我好通知你。  
 (너 연락처 하나 남겨놔. 나중에 내가 연락하기 좋게.)

그런데 (7)과 같이 후속절의 행동주가 ‘好’의 앞에 출현하는 빈도는 사역동사를 사용하여 행동주를 도입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다시 말해, 선행절과 후행절 행위의 행동주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讓’, ‘叫’ 등의 사역구문의 방식을 채택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好’의 발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소정(2018)에 따르면, 원래 ‘好V’ 형식은 당대 이전에는 단문에만 사용되다가 당말송초에 이르러 복문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 (8) 知汝遠來應有意, 好收吾骨瘡江邊。(韓愈『左遷至藍關示侄孫湘』)  
 (당신이 멀리서 온 것은 분명 뜻이 있어서 일 테니, 장강변에서 나의 뼈를 잘 거두어 다오.)

(8)에서 ‘好’는 후행절의 제일 앞부분에 놓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주며 논리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당송시기에 ‘好’는 복문에서 후행절의 맨 앞,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경계 위치에 출현하다가, 명대에 이르러

서는 '好'의 앞에 주어나 기타 수식 성분이 삽입되어 '好'가 후행절의 맨 앞이 아닌 중간에 위치하는 용례가 생겨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sup>10)</sup>

- (9) 你指与我, 我好打他。  
(나에게 알려줘, 내가 그를 때려주게.)

(9)의 후행절에서 '好' 앞에 행동주 주어 '我'가 출현하였다. 이처럼 복문의 후행절에서 '好' 앞에 기타 성분이 출현하는 용법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생겨난 신생 용법으로서, 사용 빈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대 중국어에서조차도 아직 해당 용법이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연결부사 '好'가 후행절의 머리 위치에 오는 용례가 후행절 주어 뒤에 위치하는 용례보다 탄생시기가 훨씬 이르며 또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후행절의 머리 위치에 놓이는 '好'의 용법이 더욱 성숙하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사 '去'는 연결부사 '好'와 결합하는 동사 중에 사역동사 '讓' 다음으로 결합 빈도가 높다. '好'와 '去'의 결합 상황을 보면, 이때 '去'는 대부분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이끌어내는 허화된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10) a. 她不得不一遍又一遍地讀了又讀, 好去体味它真正的意思。  
(그녀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었다.)  
b. 他一把揪着天鵝脖子就準備殺死它, 好去做一碗湯。  
(그는 탕을 만들려고 거위의 목을 한 손에 잡아 당겨 죽일 준비를 하였다.)

'去'는 본래 이동을 나타내는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다가 동사구 앞에 쓰여 행위의 목적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이는 후행절에 쓰인 '好+V' 형식

10) 임소정(2018)에서 인용.

이 선행절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과 의미적으로 상통한다. ‘好’와 ‘去’가 함께 쓰임으로써 상승효과가 생겨 목적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사실 (10)에서 ‘去’를 삭제하여도 문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다음을 보자.

- (10') a. 她不得不一遍又一遍地讀了又讀，好体味它真正的意思。  
(그녀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었다.)
- b. 他一把揪着天鵝脖子就準備殺死它，好做一碗湯。  
(그는 탕을 만들 수 있게 거위의 목을 잡아 당겨 죽일 준비를 하였다.)

‘去’를 삭제한 (10')은 삭제 전의 문장 (10)보다 목적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去’ 다음으로 ‘有’, ‘能’ 순으로 ‘好’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다. 우선 ‘有’는 앞서 제시한 ‘好’와 결합하는 다른 동사들과는 달리 동태성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동사이다. 그러나 복문에서 ‘好+V’ 형식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개 선행절의 사건을 통해 무에서 유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일종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난다.

- (11) a. 不過你先來報告一聲也好，我們好有一个預備。  
(그래도 내가 미리 와서 알려주니 좋기는 하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 b. 素云呀，寫封信叫效武回來吧，你好有个帮手。  
(소운아, 편지 한 통 써서 효무더러 돌아오라고 해라. 와서 너를 좀 도울 수 있게.)

(11a)는 원래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가 ‘상대방이 와서 알려주는’ 선행절의 행위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11b)의 경우에는 편지로 효무를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통해 조수가 생겨나는 상황이다. 즉, 연결부사 ‘好’와 동사 ‘有’로 구성된 후행절은 어떤 본래의 정적인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무에서 유로

변화된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이제 연결부사 '好'와 '能'이 결합하는 예문을 보자.

- (12) a. 太太們幾次要丫鬢去和她們打，好能湊一桌。  
 (판을 하나 더 깔고자 부인들은 몇 번이고 몸종들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b. 趕緊回家，好好休息一下，晚上好能參加晚會。  
 (얼른 집에 돌아가서 잘 쉬어. 그래야 밤에 파티에 참가하지.)

(12)에서 연결부사 '好'는 능원동사 '能'과 결합하고 있는데, 이때 '能'을 삭제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삭제 전후의 문장은 미세한 의미적 차이를 가진다.

- (12') a. 太太們幾次要丫鬢去和她們打，好湊一桌。  
 (판을 하나 더 깔도록 부인들은 몇 번이고 몸종들에게 같이 게임하고자 하였다.)  
 b. 趕緊回家，好好休息一下，晚上好參加晚會。  
 (얼른 집에 돌아가서 잘 쉬어. 그래야 밤에 파티에 참가하지.)

'能'을 삭제한 문장 (12')는 선행절의 행위를 하면 '湊一桌'와 '參加晚會'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에 비해, '能'이 포함된 (12)는 선행절의 행위를 하면 '湊一桌'와 '參加晚會'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좋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지금까지 연결부사 '好'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好'와 결합할 수 없는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의 관찰에 의하면, 연결부사 '好'는 [-control]의 의미자질<sup>11)</sup>을 지닌 동사 '變'이나 '覺得, 感覺, 緊張, 怕, 傷心' 등과 같은 심리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대신 '讓'을 사용하여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1) [control]은 동작주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 (13) a.\*但是我總是在努力, 我的生活好變得容易些。  
 b. 但是我總是在努力, 好讓我的生活變得容易些。  
 (하지만 나는 내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한다.)
  
- (14) a.\*他是故意的, 他故意諷刺她, 她好覺得慚愧。  
 b. 他是故意的, 他故意諷刺她, 好讓她覺得慚愧。  
 (그는 고의로 그런 것이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하여 그녀로 하여금 부끄럽게 느끼도록 한 것이다.)
  
- (15) a.\*既是短短의 問候, 我好感覺到你没有忘記我。  
 b. 既是短短의 問候, 好讓我感覺到你没有忘記我。  
 (짧은 안부였지만 네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16) a.\*他用諷諷的口吻說, 人好感到他并不認爲自己比大使遜色。  
 b. 他用諷諷的口吻說, 好讓人感到他并不認爲自己比大使遜色。  
 (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대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비난조로 말하였다.)

이상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부사 ‘好’ 뒤에 동사 ‘變’이나 심리동사 등이 직접 결합할 수 없고 사역구문 형태로 유사한 의미를 표현한다. 연결부사 ‘好’가 ‘變’이나 심리동사류와 결합하여 목적절에 출현할 수 없는 이유는, ‘목적’은 의도성을 지니는데 ‘變’이나 심리동사는 의도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3. 연결부사 ‘好’의 의미적 특징

#### 3.1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

본 절에서는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의 절 간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 고

잘하고자 한다. 임채훈(2014)에 따르면 복합절의 구성은 절과 절 간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선행절이든 후행절이든 각자 단일하게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절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 기능이 드러난다. '목적'의 경우에도 하나의 절 그 자체가 '목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으로서 기대되는 사태는 반드시 다른 절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현대 중국어에는 절과 절을 연결하여 연결된 절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연결 성분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가운데 행위와 목적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주는 성분으로 알려진 '好, 爲的, 以便, 爲了' 등의 표현이 있다.

- (17) a. 你留个電話, 到時候我好通知你。  
 (나중에 너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 번호 하나 남겨 놓아.)
- b. 培養人才, 爲的是抓市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 c. 請準確填寫聯系方式, 以便我們可以及時與您聯系!  
 (필요할 때 바로 당신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 d. 爲了便于聯系, 希望您在寄來的意見中寫明您的姓名、所在單位、擔任工作和通訊地址。  
 (연락하기 편하도록 보내주시는 의견서에 당신의 성함, 직장, 담당 업무와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17)에서 볼 수 있듯이, '好, 爲的, 以便'은 후행절에 출현하여 선행절의 목적을 나타내고, '爲了'는 선행절에 출현하여 후행절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통하여, 간혹 중국어 학습자들 가운데 연결부사 '好'를 '爲了, 爲的, 以便'<sup>12)</sup>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물

12) 韓明珠(2013)은 연결부사 '好'와 '以便'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문체상의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는 구어에 사용되나 후자는 주로 서면어에 사용된다고 보았다.

예: a. 我咽下嘴里的菜, 說: "我這是想快点吃, 好給你倆騰地方話蜜吶!"

(나는 입 안의 음식을 삼키며 말하였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둘만의 달콤한 시간

론 이들은 모두 복문에서 ‘행위-목적’ 혹은 ‘목적-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또 서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사와 의미적 측면에서 분명 구별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제 다른 관련 성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결부사 ‘好’의 의미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3)</sup>

첫째, 연결부사 ‘好’는 복문에서 주절에 해당하는 선행절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未然) 사건이든 이미 실현된 기실현(已然) 사건이든 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爲的是’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절이 기실현 사건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8) a. 你留个電話，到時候我好通知你。  
(나중에 너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 번호 하나 남겨 놓아.)  
b. 他們倆把房換到西城去了，好离上班的地儿近点儿。  
(그 둘은 집을西城 쪽으로 옮겼다. 출근 장소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이다.)
- (19) a. \*你留个電話，爲的是到時候我通知你。  
b. 他們倆把房換到西城去了，爲的是离上班的地儿近点儿。

연결부사 ‘好’는 (18a)와 같은 미실현문과 (18b)와 같은 기실현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爲的是’는 오직 (19b)와 같은 기실현문에만 사용된다.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을 주절과 종속절로 나눈다면 선행절은 주절, 후행절은 종속절에 해당한다. (18a)와 (18b)은 모두 주절인 선행절과 종속절인 후행절이 ‘행위-목적’의 의미관계를 지닌다. 소위 ‘목적’이라 함은 어떤 행위를 실천하기 전에 행위자가 가지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미실현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말하는 ‘미실현 사건’은 목적을 달

을 주려고 이렇게 급하게 먹고 있는 거잖아!”

b. \*我咽下嘴里的菜，說：“我這是想快点吃，以便給你倆騰地方恬蜜吶！”

13) 본고는 연결부사 ‘好’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다루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다른 유사한 표현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단지 연결부사 ‘好’의 특정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유의어 간의 전방위적인 비교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뒤에 발생하는 '미실현성'을 지니었다는 것이지, 발화시점 기준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미실현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주절인 선행절이 미실현 사건일 경우에 종속절인 후행절은 무조건 미실현 사건일 것이고, 선행절이 실현 사건일 경우에는 후행절은 실현 사건일 수도 있고 미실현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이다. (18a)는 요청문으로서 주절인 선행절이 미실현 사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절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후행절 역시 자연스럽게 미실현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그에 반해, (18b)의 주절인 선행절은 실현 사건이다. '집을 옮기는 행위'는 '출근 장소로부터 가깝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나라의 의도된 행동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후행절의 내용은 미실현 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예문의 주절은 이미 실현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 문장 전체는 기실현 사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게다가 '회사와 가까워지는' 목표는 '이사하는 행위가 실천됨과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후행절 역시 실현사건이 된다. 그런데 늘 (18b)처럼 선행절의 동작을 실천함으로써 곧바로 목표로 설정해둔 행위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선행절에 미래의 동작을 하도록 시키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請, 叫, 答應, 同意' 등이 올 경우에는, 설사 '請, 叫, 答應, 同意' 이런 동작들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목적절의 행위가 발화시 기준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맥락을 배제한 문장 자체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동사 '請, 叫, 答應, 同意' 등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지 목적 달성에 직접 관여하는 동작을 예고하는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행위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직접 관여하는 동작의 실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목적절 역시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她請了新同事到她家喝茶, 大家好認識.' 이 문장에서 '請'이라는 초대하는 행위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지만 초대 받은 동료들이 실제로 이미 그녀의 집에 와서 차를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후행절인 '大家好認識'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는 전후 맥락을 통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好’가 사용된 복문에서 선행절X와 후행절Y의 의미적 관계는 크게 ‘전제조건-결과’와 ‘행위-목적’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유형이든 기본적으로 ‘X와 Y가 자연적인 순접 관계를 이루고 X가 Y를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작용함’을 전제로 한다. 연결부사 ‘好’와 전치사 ‘爲了’의 예문을 대조하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20) a. \*我請她來北大附近的紅房子咖啡館喝咖啡, 好感謝她在文章中對我的“吹捧”。
- b. 爲了感謝她在文章中對我的“吹捧”, 我請她來北大附近的紅房子咖啡館喝咖啡。
- (나는 그녀가 글에서 나를 치켜 올려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자 북경대 근처의 카페로 초대하여 커피를 사주었다.)

‘我請她來北大附近的紅房子咖啡館喝咖啡’를 X, ‘感謝她在文章中對我的“吹捧”’을 Y로 본다면, (20)은 ‘Y하기 위해 X하다’와 같이 ‘행위-목적’의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위-목적’의 관계임에도 ‘爲了Y, X’형식은 사용할 수 있지만 ‘X好Y’ 구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20a)의 X와 Y는 ‘자연스러운 순접관계’ 혹은 ‘X가 Y를 유리하게 해주는 선행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를 북경대 근처 카페로 초대한 행위’ X는 ‘감사를 표하는’ Y사건의 발생을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소위 ‘유리하게 해주는 선행조건’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수월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수행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근접해지는 것이지 목적과 곧바로 직결되는 직접적인 조건 내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의 상황은 카페로 상대방을 초대한 것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행동이며 직접적인 이유이다. X와 Y는 자연적인 순접관계가 아닌 인위적 관계라 할 수 있겠다. ‘爲了’는 ‘(수단)행위-목적’의 관계에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직접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20b)는 자연스럽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록 연결부사 '好'와 전치사 '爲了'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행위-목적'의 의미관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목적의 강도나 선후관계의 긴밀성 등의 측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행위'와 '목적'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긴밀성과 목적의 강도 면에서 '爲了'가 '好'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아래의 '爲了'와 '好'가 동시에 출현한 예시를 보자.

- (21) a. 胖胖的小手托着四脚朝天的烏龜，爲了好讓“先生”欣賞蹬個沒完沒了的小腳。  
 (아저씨가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작은 발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오동통한 작은 손은 네 발을 하늘로 하고 있는 거북이를 받치고 있었다.)
- b. 我的夫君，我就是你那苦命的妻子，爲了好讓你回家來安居樂業，我情願天涯海角，到處飄零。  
 (나의 부군, 나는 바로 당신의 팔자 센 아내요. 당신이 집에 돌아와 평안히 살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저 멀리 도처에 떠돌고자 합니다)
- c. 她爲了好讓他回來，已經出走，再也不回到羅西雄來了。  
 (그녀는 그가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미 떠났으며 다시는 뉘시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 d. 礦工的蠟燭釭是用粗鐵條做的，下面一端尖，爲了好插在岩石里。  
 (갱부의 양초대는 굵은 쇠꼬챙이로 만든 것이다. 바위에 꽂기 좋게 하기 위하여 아래 부분은 뾰족하다.)

'爲了'와 연결부사 '好'가 하나의 절 안에 동시에 출현하는 사례를 고찰해본 결과, (21)과 같이 거의 대부분 '爲了'가 '好'의 앞에 선행하여 '爲了好V'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인 '好爲了V'의 예시<sup>14)</sup>는 코퍼스에서 단 한 건만 찾아볼 수 있었다. '爲了'가 목적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기능이 '好'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爲了好V'는 '好V'를 내포하는 형태로서

14) 예) 它想使政治上及神學上的鬥爭有一個了結，好爲了像東印度公司和英格蘭銀行、萬有引力說與血液循環的發現等這類激奮人心的企業和科學事業解放出精力。

‘v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중국어에서 연결부사 ‘好’가 선행절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sup>15)</sup>

- (22) a. 三星期后, 辛楣請新同事上茶室早餐, 大家好認識。  
 (3주후에 신메이는 새 동료들을 차실로 초대하여 조식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 b. 他說男人有思想創造力, 女人有社會活動力, 所以男人在社會上做的事該讓給女人去做, 男人好躲在家里從容思想, 發明新科學, 產生新藝術。  
 (그가 말하기를, 남자는 사상 창조력이 있고 여자는 사회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사회에서 하는 일을 여자에게 하라고 넘겨주고, 남자는 그럼으로써 집안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과학을 발명하고 예술을 탄생시킨다.)<sup>16)</sup>

신혜인(2013)은 (22)의 두 문장 모두 ‘전제조건-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으로 보고 있다. 즉, 선행절X는 후행절Y가 나타내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때 ‘好’는 ‘(這樣)就可以’의 뜻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근거하여 해당 예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상기 해석문과 같이 ‘X함으로써 Y하게 되다’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22)를 ‘행위-목적’의 관계로 보는 것이 작품의 내용상 더욱 자연스럽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선행절X의 동작을 이행할 때 이미 후행절Y가 나타내는 내용을 목적으로 삼고 사전에 의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개 아래와 같이 우리말로 ‘Y하도록 X하다’ 혹은 ‘Y하기 위하여 X하다’ 식으로 해석된다.

- (22’)a. 3주 후에 신메이는 서로 알고 지내게 하기 위하여 새 동료들을 차실로 초대하여 조식을 함께 하였다.
- b. 남자가 집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과학을 발명하고 예술을 탄생시킬 수

15) 신혜인(2013)에서 인용.

16) 예문(22)의 우리말 해석은 신혜인(2013)의 본문 속 해설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고가 재구성한 것이다.

있도록 여자에게 사회적 일을 양보해야 한다.

본고와 신혜인(2013)은 동일한 '好' 구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 해석 모두 '好' 구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석이다. 다만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해석이 더 적합한지는 문맥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해석, 즉 (ㄱ) '전제조건-결과'와 (ㄴ) '행위-목적'은 또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Traugott&Konig(1991)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텍스트 연결 장치가 시간적 선후관계에 의한 자연적인 순접 관계(X 한 후에 Y하다)를 의미하다가 여기에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A하였기 때문에 B하다'나 'B하기 위하여 A하다'와 같이 원인이나 목적을 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연결부사 '好'가 쓰인 복문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화용적 추론에 의하여 (ㄱ)'X하면 Y한다(조건-결과)'에서 (ㄴ)'Y하도록/하려고 X하다(행위-목적)'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화자 지향적 양태 vs 행위자 지향적 양태

앞서 3.1절에서 논의하였듯이, 현대중국어에서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은 크게 '전제조건-결과'와 '행위-목적' 두 가지 의미 유형을 지니고 있다. '전제조건-결과'는 선행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후행절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논리 관계이다. '행위-목적'은 선행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가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건을 의도하고 이행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지닌다. 연결부사 '好'는 양태(Modality)<sup>18)</sup>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Bybee *et al.*(1994)는 '양태'를 크게 '동작주 지향적 양태(agent-oriented modality)', '화자 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와 '인식적 양태(epistemic modality)', '종속적 서법(subordinating mood)'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9)</sup> 이 중

17) 이성하(2011)에서 재인용.

18) 양태란 어떤 명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 혹은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 범주이다.

동작주 지향적 양태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와 관련하여 동작주에게 의무나 의지 등의 조건이 부과되는 데 비해, 화자 지향적 양태는 동작주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한 것을 나타낸다.<sup>20)</sup> 이에 근거하면, '전제조건-결과'는 화자의 추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화자 지향적 양태'에 해당하고, '행위-목적'은 후행절의 실현을 의도한 주체가 행위자이나 화자이나에 따라 '행위자 지향적 양태'와 '화자 지향적 양태'로 나눌 수 있다. '好' 복문 가운데 '전제조건-결과' 혹은 '행위-목적' 중에 어느 한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전자와 후자 어느 쪽으로든 모두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경우도 있다. 코퍼스의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의 의미 유형은 주로 선행절 주어의 인칭과 전체 사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고찰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주어의 인칭과 사건의 실현 여부에 따른 의미해석 양상

선행절 주어 \ ±실현	[-실현]	[+실현]
1인칭	'행위-목적'	'행위-목적' '전제조건-결과'
2인칭	'행위-목적'	해당없음 <sup>21)</sup>
3인칭	'행위-목적' '전제조건-결과'	'행위-목적' '전제조건-결과'

19) 박재연(2003)에서 인용.

20) 박선자·김문기(2010: 257)에서 인용.

21) 명령문(미실현문)이나 몇몇 특수한 상황(예: 청자가 자신의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화청자가 함께 지난 일을 회고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2인칭 주어인 청자에 대한 화자의 서술은 일종의 월권행위와도 같다.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사정이나 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자신의 정보를 전달 받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통 '?너는 머리가 아프다.', '?너는 작년에 경극을 보려고 중국에 갔어.' 등의 발화는 하지 않는다.

먼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복문의 사건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해보면, 실현문의 경우 '행위-목적'과 '전제조건-결과' 두 가지 의미 유형으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지닌다. 다음 예를 보자.

- (23) a. 我買了一些吃的, 餓了好吃。  
 (ㄱ. 배고플 때 먹으려고 먹을 것을 좀 샀어.)  
 (ㄴ. 내가 먹을 것을 좀 사놓아서 배고플 때 먹으면 돼.)
- b. 三星期后, 辛楣請新同事上茶室早餐, 大家好認識。  
 (ㄱ. 3주후에 신메이는 서로 알고 지내게 하려고 새 동료들을 차실로 초대하여 조식을 같이 하였다.)  
 (ㄴ. 3주후에 신메이는 새 동료들을 차실로 초대하여 조식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3a)와 (23b)는 선행절의 주어가 각각 1인칭과 3인칭인 복문으로서 두 예문 모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 '행위-목적'과 (ㄴ) '전제조건-결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ㄱ)식의 해석은 후행절의 실현에 대해 동작주의 의도와 기대가 있는 '행위자 지향적 양태'에 해당하고, (ㄴ)식의 해석은 화자의 판단과 추정을 나타내는 '화자 지향적 양태'에 해당한다.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이 명령문과 같은 미실현 사건일 경우 선행절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미 유형이 달라진다. 선행절 주어 1인칭이나 2인칭인 경우, '好' 복문은 '행위-목적'으로 해석되고, 3인칭인 경우 '행위-목적'과 '전제조건-결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닌다. 다음은 그 예이다.

- (24) a. 我一定問清楚几点鐘能下班, 好來幫忙。  
 (나는 나중에 와서 도울 수 있도록 몇 시에 퇴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볼 것이다.)
- b. 趕緊回家, 好好休息一下, 晚上好能參加晚會。  
 (밤에 파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얼른 집에 돌아가서 잘 쉬어.)

(24a)의 선행절 주어는 1인칭, (24b)의 선행절 주어는 2인칭이다. (24a)와

(24b) 모두 후행절의 실현을 위해 선행절의 행위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고는 ‘행위-목적’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4)를 ‘전제조건-결과’ 형태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4)의 ‘행위-목적’에서 ‘목적’이 화자 지향적이기 때문에 화자지향성을 지니는 ‘조건-결과’식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둘 다 화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미가 상통한다. 다음을 보자.

(24') a. 나는 몇 시에 퇴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볼 것이야. 그래야 나중에 와서 돕지.

b.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그래야 밤에 파티에 참가하지.

이상의 해석과 같이 ‘전제조건-결과’식으로 해석하여도 결과적으로는 ‘행위-목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자가 ‘전제조건-결과’의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선행절 행위자에게 화자 자신의 목적을 부여하는 타당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sup>22)</sup>

이제 연결부사 ‘好’ 복문이 미실현 사건이면서 선행절 주어가 3인칭인 문장을 보자.

(25) 大家準備點起火來，狄克好能看到。

(ㄱ. 사람들은 디이 볼 수 있도록 불을 붙이려고 한다.)

(ㄴ. 사람들은 불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디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5)는 선행절의 주어가 3인칭인 복문으로서 (ㄱ) ‘행위-목적’과 (ㄴ) ‘전제조건-결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ㄱ)은 행위자 주어가 후행절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을 나타내고 (ㄴ)은 선행절 행위자의 행동을 통해

22) (24a)는 선행절의 행위자가 1인칭으로서 화자와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행절 행위의 목적을 화자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24b)는 비록 선행절의 행위자가 화자 본인이 아닌 2인칭이지만, 명령문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목적을 청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행절이 실현된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결부사 '好'가 사용된 복문이 '행위-목적'과 '전제조건-결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상황을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나는 선행절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복문 전체가 실현 사건이면서 선행절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와 같이 중의성을 지니는 구문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중의성을 해소한다. 다음을 보자.

- (26) a. 是我存心不点灯, 好坐着看月亮.  
 (내가 일부러 등을 안 켜 거야. 앉아서 달을 보려고.)  
 b. 他故意諷刺她, 好讓她覺得慚愧, 她才不會呢!  
 (그는 고의로 그런 것이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하여 그녀로 하여금 부끄럽게 느끼도록 한 것이다.)  
 c. 穿成這樣才好要錢!  
 (이렇게 입어야 돈을 구걸하기 좋다구!)  
 d. 譬如在有職業的人的眼里, 早餐是今天的開始, 吃飽了可以工作; 而從一夜打牌、通宵跳舞的有關階級看來, 早餐只是昨宵的結束, 吃飽了好睡覺.  
 (직장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아침은 오늘의 시작이고 배를 채우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밤새 카드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논 한량한 계급들 눈에는 아침은 단지 전날 밤의 끝에 지나지 않으며 배를 채우면 잠자기 좋은 것이다.)

(26a-c)의 경우 문장에 '存心, 故意, 才' 등의 성분이 출현함으로써 중의성이 해소된다. (26a)와 (26b)는 문장 안에 행위자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두 문장 모두 '행위-목적'으로 해석된다. (26c)는 'X해야 비로소 Y하다'라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才'가 사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제조건-결과'로 해석된다. (26d)는 작품의 맥락상 '전제조건-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직장인에게 아침식사는 일하기 위해 먹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한량에게 아침이란 목적성이 없고 단지 먹고 나면 배가 불러 잠을 청하게 되는 사치에 불과한 존재이다.

즉, 잠을 이루기 위해 아침식사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 복문에 사용되는 ‘好’를 연결부사로 명명하고 그것의 통사와 의미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결부사 ‘好’의 통사적 특징으로는 첫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에 대한 제약과 주어의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행절에 주어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주어가 ‘好’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위치적 제약 조건은 존재하였다. 둘째, 연결부사 ‘好’와 결합하는 동사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好’와 사역동사 ‘讓’이 압도적으로 많이 결합하고 그 다음으로는 ‘去’, ‘有’, ‘叫’, ‘能’ 순으로 결합 빈도가 높았다.

연결부사 ‘好’의 의미적 특징과 관련하여, 우선 ‘好’가 사용된 복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결부사 ‘好’ 복문은 크게 ‘전제조건-결과’와 ‘행위-목적’ 두 가지 의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제조건-결과’ 유형은 선행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후행절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행위-목적’ 유형은 선행절 서술어가 가리키는 행위가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건을 의도하고 이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적 유형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연결부사 ‘好’가 화자/행위자 지향적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선행절 주어의 인칭과 복문 전체 사건의 실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화자 지향적 양태와 선행절 주어(행위자) 지향적 양태가 주어의 인칭과 사건의 실현 여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 參考文獻 >

- 박재연,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제41권, 2003.
- 申惠仁, <現代漢語“好”的語義及用法考察>, 《중국어문학논집》 제54호, 2009.
- 신혜인, <현대중국어 '好(hǎo)'의 조동사(助動詞), 연사(連詞) 및 관련부사(關聯副詞) 용법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82호, 2013.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임소정, <'好'의 문법화 및 용법 간의 상관성 연구 - 조동사, 접속사, 관련부사 용법을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 제85집, 2018.
- 임채훈, <'목적' 종속절의 유형문적 특성과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 관련 연결어미 습득 양상 - '-(으)로, -(으)려고, -고자, -도록' 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58집, 2014, 463-486.
- 韓明珠, 《現代漢語目的復句的類型及其偏誤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王永娜, <“爲了”与“以便”的語義、語用比較>, 《漢語學習》 第1期, 2007.
- Bybee, Perkins,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박선자·김문기 역, 《문법의 진화: 시제, 상, 양태》, 소통, 2010.)

< Abstract >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Mandarin Chinese 'Hao' Used in the Purposive/Resultative Complex Sentences

Lim, So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Mandarin Chinese 'Hao' as conjunctive adverb, which is used in complex sentence.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conjunctive adverb 'Hao' are as follows: First, the conjunctive adverb 'Hao' has no constraint on person-type of subject,

matching of the antecedent clause and following clause.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requency of ‘Rang’ which is combined with conjunctive adverb ‘Hao’ is overwhelming, followed by ‘Qu’, ‘You’, ‘Jiao’, ‘Neng’.

Regarding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njunctive adverb ‘Hao’, we first looked at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 clause and following clause in the ‘Hao’ sentence. The ‘Hao’ complex sentence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f meaning: ‘precondition-result’ and ‘action-purpose’. The ‘precondition-result’ type means that the result indicated by the following clause occurs by preceding event. And the ‘action-purpose’ type means that the action pointed by the predicate intends an event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clause. In the following section, we discussed what causes this semantic type difference. Focusing on the fact that conjunctive adverb ‘Hao’ has a speaker/agent-oriented nature, it examines whether or not the Modality is influenced by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type of subject and the realization of the whole sentence.

Key Words: *Hao*, complex sentence, conjunctive adverb, syntactic, semantic, modal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2	2018. 8. 14	2018. 8. 22	2018. 9. 30